

구례, 미래 관광생태계 인프라 구축

VR영상·메타버스·AR콘텐츠 등 스마트관광 구현 섬진강통합벨트·이색레저시설 등 4대권역별 조성

구례군이 코로나19에 따른 변화된 관광생태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미래 관광 개발 구현과 함께 구례읍·섬진강·화엄사·지리산온천 4대 권역을 중심으로 관광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관광 개발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미래관광개발 구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 17대 중점추진과제를 도출했다.

기본계획은 사람과 지역이 동반성장하

는 상상 관광, 집적 발전을 추구하는 스마트 혁신 관광,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목표로 설정했다.

구례군에서는 올해 정부정책과 연동될 수 있는 스마트생태관광 조성을 위한 다양한 관광정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특구 지역 활성화 사업을 통해 특구 지역 내 실감형 VR영상 콘텐츠 및 산수유 시목지와 산수유

문화관에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 설치한다.

전남도 공모사업을 통해 관광자원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과 주요관광지 AR콘텐츠를 제작하고 지리산권 시·군과 연계된 스마트관광 콘텐츠도 개발할 계획이다.

4대 권역별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은 구례읍, 섬진강, 화엄사, 지리산온천 권역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구례읍 권역에는 통합어울림센터와 웰니스 복합센터 조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섬진강권역에는 4개 시·군이 함께하는 섬진강통합관광벨트 사업과 스카이라이프, 스카이스터 등 이색적인 레저시설 도입을 추진한다. 화엄사권역은 화엄사불부처 프로젝트와 반달기승교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추진

하고 지리산온천권역은 쪼라인과 모노레일을 개장하고 2단계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수해와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많이 위축됐지만, MBN의 ‘자연스럽게’, tvN ‘윤스테이’와 ‘지리산’이 방영되면서 국내의 인지도 상승으로 지난해 관광객이 36.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국내·외 관광 환경은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관광수요에 맞는 생태관광 환경과 4개 권역별 사업을 핵심 관광정책으로 추진해 일해년 새해에는 구례의 미래 관광생태 환경을 조성하는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전남취재본부=손석봉 기자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3일 시청사 정문에서 박람회 현판식을 열었다. /순천시 제공

2023순천만정원박람회 현판식 전 공직자 전국 홍보대사 다짐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3일 정원박람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순천시 사무식과 연계해 시청사 정문에서 박람회 현판식을 열었다.

이날 허석 순천시장은, 허유인 순천시의회의장, 신민호·강형구박람회지원특위 위원장과 조직위원회 이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현판 제막행사를 가졌다.

제막행사에 앞서 순천시 사무식에서는 시 산하 전 공직자들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공식취장 배지를 착용하며 박람회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다짐했다. 박람회 조직위는 2,000여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박람회 분위기를 조성하

고 광주·전남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2013년 정원박람회 이후 10년 만에 다시 한번 2023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며 “도시재생을 위해 2033년, 2043년, 10년 단위 정례적인 정원박람회를 통해 순천을 세계 속의 정원 도시로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일상 속 정원문화 확산을 기치로 2023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간 순천만국가정원과 도심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

보성 다향아트밸리 개장 거점형 융·복합단지 육성

보성군이 지난 3일 ‘다향아트밸리’ 개장을 기념하는 테이프 커팅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김철우 보성군수와 김재철 보성군의회 의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향아트밸리 판매 전시동에서 개최됐다.

다향아트밸리 판매전시동은 보성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보성차와 공예품 판매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보성 텃밭이름 비릇한 찻사발과 미술작품을 전시해 볼거리 제공은 물론 주말에는 무료 시음회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다향아트밸리는 이색 먹거리 ‘보성삼합’을 주력 먹거리 상품으로 내놨다. 판매전시동 1층에서 보성에서 키운 녹차떡인 떡지를 구입하면 2층에서 보성 특산품인 쪽파와 감자를 곁들여 구워 먹을 수 있다. 신선한 녹차와 제철 식재료로 만든 식단으로 운영된다.

문화 체험동은 5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카페와 숯불에 구운 ‘녹돈 갈비’ 식당, 녹차 뷰티 테라피 발마사지, 쪽파김치 체험과 구매가 가능하다.

다향군 관계자는 “보성의 다양한 특산품과 향토자원을 육성해 보성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먹거리·생활·체험이 집적화된 거점형 융·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다향아트밸리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해 트레킹로드 등을 조성하고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백종두 기자



보성군이 지난 3일 ‘다향아트밸리’ 개장을 기념하는 테이프 커팅식을 개최했다. /보성군 제공

고흥, 절이도 해전 승첩지 사업 보고회

고흥군이 최근 ‘절이도 해전 승첩지 관광생태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 마스터플랜 확정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절이도 해전은 1598년 7월 19일 녹도와 절이도 사이에서 있었던 해전으로 통제사 이순신이 지휘한 조선 수군뿐만 아니라 명 수군 도독 진린이 지휘한 최초 연합전력으로 적선 100여 척 중 50척을 격파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해전이지만 이러한 사실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절이도 해전 승첩지 관광생태 조성 사

업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리고 관광 자원화를 위해 금산면 신촌리 일원 거금휴게소 부지에 총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해 절이도 해전 기념관과 역사공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실시설계를 발주해 놓은 상태이며, 오는 4월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공사를 착수해 올해 말까지 절이도 해전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내년에는 절이도 해전 기념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절이도 해전 기념관 공간 구성, 세부연출, 역사공원 조형물, 생태탐방로 위치 및 구조물 등 콘텐츠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확정됐다.

절이도 해전 역사공원은 판옥선과 파도를 모티브로 휴식과 힐링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며, 공원 입구에 대형 입식사인, 이벤트 및 휴게공간, 잃어버린 난중일기 스토리 보드, 조선 수군 행렬, 판옥선 전판대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절이도 해전 기념관은 절이도 해전의 가치를 알리고 1관4포·홍양수군을 재조명하기 위해 홍양수군의 탄생, 홍양현감이 맡아주는 홍양 전투기, 절이도 해전 돋보기, 절이도 해전 영상체험, 조선수군이 맡아주는 홍양수군·1관 4포, 다시 보는 임진왜란과 홍양수군으로 구성됐다. /전남취재본부=진중언 기자

광양 드론 온택트 페스티벌 성료

광양시가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전남 최초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행사로 개최한 ‘광양 드론 온택트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4일 밝혔다.

광양 드론 온택트 페스티벌은 VR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드론 전시장과 광양시를 대표하는 관광지 사이버 투어, 드론 영상·사진 공모전, 드론 아트쇼, 인종샷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 VR 기술을 활용해 비

대면 행사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코로나 블루 완화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행사추진으로 드론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온라인 드론 전시장에 VR 기술을 활용해 방재·촬영·임무용 드론 수십여 종을 전시하고 이순신대교, 매화마을, 구봉산 전망대 등 광양을 대표하는 5곳을 드론으로 촬영해 버튼 하나로 투어가 가능하게 했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여수, 영유아 지원사업 확대 시행

여수시가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영유아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보육정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전액 시비 사업으로 35억6,000만 원을 투입한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억7,600만 원이 증액됐고 보육사업도 9개에서 12개로 확대 추

진된다. 그동안 어린이집 만 3~5세 유아의 특별활동은 전액 학부모 부담이었으나 신학기가 시작되는 올해 3월부터 월 2만 원씩 지원한다.

사업유치원을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부모들이 퇴근할 때까지 안전하게 돌봐주는 사업유치원 저녁 돌봄에도 2억 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클릭! 고흥 속으로



여수 웅천어린이집, 124만원 성금 기탁

여수시립 웅천어린이집이 최근 ‘따뜻한 마음 나누는 캠페인’을 전개해 모은 성금 124만5,700원을 시전중주민센터에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따뜻한 마음 나누는 캠페인’은 5개 반 80여 명의 아동이 참여했다. 아이들은 집에서 약속 미션을 수행한 후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사랑의 저금통에 차곡차곡 모았으며, 어린이집에서 기부

금을 모아 주민센터에 전달했다.

강은주 웅천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약속 미션을 통해 이웃과 나누는 행복과 기쁨을 배우는 소중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어려운 이웃들을 응원하는 희망이 담긴 만큼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보성학부모연합회, 친환경 삼배수세미 전달

보성학부모연합회가 4일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직접 손뜨개질한 친환경 삼배수세미 1,000세트를 보성군에 기탁했다. 삼배수세미는 항균·항독성 친환경 섬유로서 탈취기능 등의 장점이 있으며, 미세플라스틱의 주범인 아크릴 수세미를 대체할 수 있어 친환경 제품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문영미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 교육

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학부모연합회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동과 환경보전을 위한 비닐봉투 안 쓰기 등 환경캠페인과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친정엄마 프로젝트, 화재 지역민 구호 물품 전달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전남취재본부=백종두 기자



순천대, 두산중공업 기술협력 연구실 지정

순천대 기계우주항공공학부 연소 및 추진공학 실험실 이기만 교수연구팀이 두산중공업으로부터 두산가스터빈 차세대 기술협력 연구실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두산중공업의 기술협력 연구실 인증은 전국에서 총 8개 대학의 10개 연구실이 받았으며, 순천대 외에 서울대, KAIST 등 국내 최초 가스터빈 개발에

함께한 대학의 연구실이 선정됐다.

이기만 교수 연구팀은 지난 5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하는 ‘본산발전 가스터빈용 수소 전소저 NOx 연소기 개발’ 사업에 선정됐다.

이기만 교수는 “역량을 결집해 국내 최초 발전용 가스터빈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연 기자